

IBKS Spot Comment

제약/바이오

정이수, CFA

02) 6915-5677

[제약/바이오]

Eli Lilly, Camurus와 최대 8.7억 달러 기술 계약 체결

Camurus과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 협력

2025년 6월 3일(현지시간)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스웨덴 바이오 기업 카무루스(Camurus)와 최대 8.7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릴리는 카무루스의 장기 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인 FluidCrystal을 활용해 자사의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FluidCrystal은 프리필드 시린지나 오토인젝터를 통해 체내에 주입되면 액정 겔로 전환되어 약물을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방출하는 지질 기반 액체 제형 기술이다.

릴리는 자사 최대 4개 파이프라인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상 후보물질에는 GIP/GLP-1 이중 작용제, GIP/Glucagon/GLP-1 삼중 작용제,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option)가 포함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카무루스는 선급금 및 개발·허가 마일스톤으로 최대 2.9억 달러, 상업화 이후 매출 기반 마일스톤으로 최대 5.8억 달러를 수령하며, 시판 후 순매출에 대해서는 한자리 수 중반대(mid-single digit)의 단계별 로열티를 받을 예정이다.

릴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사의 비만 및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젠티만, 레타트루타이드 등)에 FluidCrystal을 적용하여 기존 주 1회 투여 제형을 월 1회 제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약 발표 이후 6월 4일 카무루스(STO:CAMX)의 주가는 +23.92% 급등한 반면, 릴리와의 계약 불확실성이 부각된 펩트론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펩트론은 2024년 10월 릴리와 SmartDepot 플랫폼에 대한 비독점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약 14개월로 현재 종료까지 약 6개월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펩트론 측은 FluidCrystal 기술과 자사 플랫폼은 전혀 다른 기술이며 릴리와의 기술성 평가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릴리가 계약 조건상 30일 전 서면 통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